

었다네. 길 위에 깔린 돌 때문에 발에 피가 나고 있었던 게지. 성의를 다해 도움이 되고 싶었던 나머지 신발 신는 것을 까먹었었거든. 고사리잎에서 전해지는 찬 기운에 고통이 가라앉는 것을 느낀 비르지니는 대나무 가지 하나를 부러뜨려 한 손으로는 그 막대기를 짚고, 다른 한 손으로는 오빠의 부축을 받으며 걷기 시작했어.

두 아이는 그렇게 천천히 숲을 가로질러 나아갔지만, 높이 솟아오른 나무와 뻥뻥하게 우거진 잎은 순식간에 길라잡이로 삼았던 삼유방산을 시야에서 가려버렸고, 이미 뉘엿거리고 있던 해마저도 감춰버렸다네. 얼마 안 있어 두 아이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그때까지 걸어오면서 터놓은 오솔길에서 벗어나, 나무와 리아나덩굴과 바위로 이루어진, 더는 빠져나갈 길 없는 미로 속에 들어와 있었지. 풀은 비르지니를 앉혀두고,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는 이 뻥뻥한 덤불숲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내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. 하지만 부질없이 지치고 말았네. 풀은 최소한 삼유방산이라도 봐두기 위해 키가 큰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, 주위에 보이는 것이라곤 그저 저물어가는 마지막 햇살을 받아 드문드문 선명한 빛깔로 물든 나무우듬지뿐이었지. 그러는 동안 산 그림자는 이미 골짜기 곳곳의 숲을 뒤덮었고, 해 질 무렵이 되면 으레 그렇듯 바람은 잦아들었네. 깊은 침묵이 그 적막 속을 퍼져나갔고, 보금자리를 찾아 것처럼 외딴곳으로 들어오는 사슴들의 울음소리